

# 고물가·고금리 '1인 가구' 부터 덮쳤다... 소득 '뒷걸음질'

###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 가구 소득은 증가한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 속 '1인 가구'의 소득만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1인 가구는 팍팍해진 살림살이 속 옷과 외식·숙박과 같은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였다.

◇1인 가구 소득 2.4% ↓, 4인 이상은 10.6% ↑ =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2.4% 감소했다.

반면 2인 가구는 6.9% 늘었고 3인과 4인 이상 가구도 각각 3.1%, 10.6% 늘었다. 전체 평균도 3.4% 증가했다.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0.8% 증가하는 데 그쳤

### 월 278만3천원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4인 가구는 8.2% 늘어 옷·외식·숙박 소비, 11분기 만에 감소 전환...식료품·음료 3.8% ↑

다. 2인(3.8%), 3인(7.8%), 4인 이상(8.2%) 가구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인 가구에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15.6%씩 급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업소득의 경우 농가의 1인 가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분위(소득 하위 20%)에 1인 가구 비중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감소했다.

1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었다. 2인(7.0%), 3인(3.0%), 4인 이상 가구(10.0%)에서

는 늘었다.

◇1인 가구 소비 증가율 2년 반 만에 최저=소득이 줄어든 1인 가구는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부터 줄였다.

3분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2021년 1분기(1.0%) 이후 가장 증가율이 낮다.

의류·신발이 7.9% 감소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옷과 신발값이 크게 뺀 영향이 컸다.

3분기 의류·신발의 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가장 상승

률이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었다.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 전환이다.

반대로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었다. 2021년 4분기(3.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들쭉거리면서 필수용품 지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료 인 한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도 8.4% 늘었다.

◇늘어나는 노인 1인가구... "맞춤형 전략 필요" = 1인 가구는 20~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독거노인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통계청은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서 2021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이며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1인 가구 가운데 20대 이하 비중은 2005년 22.8%였으나 2050년에는 7.5%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05년 17.3%였던 70세 이상의 비중은 2050년 42.9%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한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에서 1인 가구의 유형을 ▲노년 사별 여성·남성 ▲기러기형 중년 ▲중년 이혼 여성·남성 ▲미혼 젊은 여성·남성 등으로 구분했다.

연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가 낮다"며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과 새로운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연합뉴스



## 광주은행 '해 뜨는 식당'에 백미 55포 후원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 뜨는 식당'에 백미 55포를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해 뜨는 식당'은 13년 동안 백반을 1000원에 판매 중인 곳으로, 어려운 이웃 주민들의 한 끼를 책임져 오고 있다. 식당은 고물가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처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광주은행도 광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백미 55포대를 후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해 뜨는 식당'에 감사하다"며 "광주은행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 출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지난 24일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출범식에는 광주·전남지역 승계기업인과 예비 승계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초대회장에 이종효

(남부산업 주식회사) 대표를 선출했다.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는 1세대 경영인들의 고령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와 향토장수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CEO 23.8%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국가가 기업승계를 근로자 고용유지 수단으로 인식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이제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현실로 다가온 사회문제이며,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고 오랫동안 축적된 기업가치의 승계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를 통해 우리지역에서도 100년 향토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4	28	29	34	40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617,825,575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76,544,608	57			
3	5개 숫자 일치	1,688,484	2,584			
4	4개 숫자 일치	50,000	135,653			
5	3개 숫자 일치	5,000	2,278,659			

## 중소제조업 하루 평균 급여 10만5773원...4.6% 증가

### 전기전자 관리자 15만218원 '최다'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하루 평균 급여는 10만 5773원으로 작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10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0만5773원으로 올 상반기(10만4708원)보다 1.0%, 작년 같은 기간(10만

1116원) 보다는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종별 살펴보면, 작업반장의 노임은 올 하반기 12만8038원으로 전년(12만1072원)보다 5.8%, 상반기(12만5583원) 대비 2.0%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8만8920원이었던 부품 조립원의 임금은 올 하반기 9만2341원으로 3.8% 증가했다.

임금이 가장 많은 직종은 '전기·전자및기계품질 관리자'로 15만218원이었다. 뒤이어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4만2790원-전기기사 14만711원-패턴사 13만7241원-기타공학품질관리사 13만

6360원-CAD설계사(화로) 13만5779원-안전관리사 13만4355원으로 많았다.

가장 임금이 적은 직종은 다이크스트원으로 7만 9207원 이었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의 기준단가로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 조사 결과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파리지 부산엑스포 유치 막바지 홍보전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주요 길목과 관광 명소, 도심 매장까지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국립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외벽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부산 엑스포 로고가 적힌 광고판이 붙어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LH, 빛그린 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공급

### 12월 4~8일 분양 신청

LH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월 말 광주시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 일원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시설용지 17필지(자동차산업)를 추경 경쟁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이번에 유치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조성 중인 407만㎡ 대규모 산업단지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입주해 있으며, 주변지역이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선정되는 등 입지가 나열되고 있다.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빛그린 2단계 구역(2023년 11월말 조성률 73% 수준)으로, 함평군 지역 투자 촉진 및 2단계 구역 수요를 고려해 추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빛그린 2단계 구역의 공급단가는 ㎡당 23만 2169원으로, 주변 산단지 에너지밸리 국가산단(41만1000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45만 3000원/㎡), 평동 3차 일반산단(33만7000원/㎡)과 비교해 저렴하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급 토지인 산업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342.3㎡-1만8040.6㎡, 공급금액은 12억4032만원-41억8846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3년 균등 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토지 분양 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는 오는 12월 4-8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발표한다. 분양대상자는 오는 12월 20-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LH와 계약을 맺는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부(062-360-3177, 3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 열려

###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지난 24일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제16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무역포럼은 전남 동부권 소재 기업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개최하고 있다.

홍중호 교수는 강의에서 "기후변화가 경제위기로 번변하고 있기에 기업인들의 올바른 위기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경영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포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속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